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0)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0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25)수악계곡
절벽 관통한 日갱도 계곡서 찾아내

입력 : 2008. 01.17. 00:00:00



▲수악계곡 하천절벽 위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 입구쪽 수림이 울창하다. /사진=이승철기자

서귀포지역 본격 탐사 시작...하천 절벽 뚫고 디글자형 갱도진지 구축 여지껏 실태파악 안돼 ... 실제규명 관심

햇수로 4년째 접어든 탐사는 이제 서귀포 지역으로 들어섰다.

1945년 6월 무렵의 일본군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에 제주 중앙부는 96사단이 주둔한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구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이 포함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본군 작전지도인 '일본군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에는 서귀포지역에 108여단이 주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도는 '결7호작전' 준비 초기인 1945년 4월15일에서 5월20일 사이의 일본군 배치도를 보여준다. 두 지도가 각각 시차를 달리해서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둔부대가 이동 재배치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본군 108여단과 96사단이 주둔했던 서귀포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다. 일본군 진지가 유형별로 뚜렷이 나타난 '제58군배비개견도'에 따르면 서귀포지역도 북곽진지 주저항진지 위장진지 등이 분포해 있다. 하지만 실제 서귀포지역의 일본군 갱도 등 군사시설은 아직까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탐사를 통해 얼마나 그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사다.

취재팀이 서귀포 지역에서 맨 처음 찾은 곳은 수악계곡이다. 취재팀은 기획보도를 처음 시작하던 2005년 10월에 기초조사차 수악계곡을 탐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재차 이 일대를 찾았다.

한라산 중허리, 하천 양쪽은 10여m의 단애가 형성돼 있다.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하천은 울창한 수목과 바위들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이 바로 한라산 주요 경관지중 하나로 꼽히는 수악계곡이다. 수악계곡은 오름을 관통해서 형성된 대표적인 계곡의 하나다. 하천의 전 구간이 국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신례천의 주류를 형성하는 계곡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곡에도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갯도진지 등을 구축한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계곡마저 일제의 침략야욕이 빚어낸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한라산 5·16도로변 수악교에서 하천을 따라 1백여m쯤 거슬러 올라간 지점. 고도계는 해발 5백48m를 가리킨다. 취재팀의 눈앞에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갯도가 나타났다.

갯도는 가파른 계곡 단애면의 단단한 바위를 뚫고 형성돼 있다. 얼핏 보면 천연동굴 같지만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디귤자형 구조의 갯도다. 계곡 단애면을 디귤자형으로 파 들어가 출입구가 양쪽으로 각각 나 있다. 갯도 입구는 북쪽으로, 자연스레 계곡이 관찰되는 곳이다.

입구 진입부는 각각 8m 정도의 길이이다. 내부 주통로의 길이는 20m(폭 3m, 높이 2m 내외)정도 된다. 갯도 내부 중간쯤 지점에는 길이 3m 정도의 자그만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 입구 부분에는 1.4m×1.4m 크기의 시멘트로 만든 물통이 하나 있다.



(사진 위로부터) 일본군 갯도 내부에서 조사를 벌이는 취재팀, 수악계곡 단애면에 형성된 갯도 입구, 수악계곡 일대에 남아있는 4·3당시 유적인 석축. 망루역할을 했다.

이 갯도는 규모는 작지만 수악계곡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길목을 지키면서 유격전을 위한 진지로 만든 것이다. 일본군들은 미군 등 연합군이 해안으로 상륙해서 내륙으로 밀고 올라올 경우 제주도 곳곳에 파놓은 갯도진지 등을 활용한 유격전을 계획했다. 제주도에서 이른바 '제2의 오키나와'처럼 '최후의 옥쇄작전'을 준비했다.

이 일대는 울창한 수림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형적으로는 해안까지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또한 '제58군배비개건도'에는 주저항진지로 표시된 수악(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이 수악교 남쪽 1.3km 정도 남짓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흔적은 또 있다. 태평양전쟁 뒤 이어진 비극적인 4·3시기에 만들어진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4·3유적은 갯도 맞은편, 즉 계곡 건너편에서 확인된다. 석축은 현무암 잡석을 겹담으로 쌓아 수십 미터 이어져 있다. 망루까지 만들어져 있는 등 단순한 석축이 아니라 하나의 성(城)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석축을 쌓는 데는 서귀포시 신례리를 비롯 주변 마을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한다.

수악계곡의 일본군 갯도는 서귀포 지역 또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무차별 유린됐음을 보여주는 현장이지만 아직까지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은 "서귀포 지역은 108여단에 이어 96사단이 주둔하지만 아직까지 이동시기와 주둔실태 등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악계곡의 갯도는 일본군이 서귀포지역에도 갯도 등을 구축하고 일본토결전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